

EU 연구혁신 주간 동향 보고

<26.08.20, 한-EU연구협력센터>

○ EU 집행위, EIT 미래 놓고 공개 의견 수렴(8.14)

- 일부 회원국과 전문가들이 EIT의 효율성과 운영 모델을 비판하고 있는 가운데, 집행위는 EIT가 EU의 경쟁력과 혁신 생태계 강화에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평가함
- EIT가 유럽을 연구자·혁신가·기업가들이 아이디어와 기술, 기업을 발전시키기에 매력적인 지역으로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 핵심 의견임
- 이번 **의견 수렴**은 EIT·지식혁신공동체(KIC)의 문제 진단과 운영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을 받으며, 9월 23일까지 진행됨

○ EU, 빅테크 규제 집행 방식 전환... 대규모 과징금보다 '규정 준수'에 초점(8.19)

- 집행위는 지난달 EU 디지털시장법(Digital Markets Act, DMA) 위반으로 구글에 8억 9,000만 유로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나, 과거 경쟁법 제재보다 규모와 발표 수위가 낮았음
- EU의 빅테크 규제가 고액 과징금 중심에서 대화와 규정 준수 유도로 변화하며, 일각에서는 중소 기술 기업 보호 기조의 후퇴라는 지적도 나옴
- 이에 향후 규제당국의 직접 과징금은 줄어드는 대신 민간 소송과 손해배상의 역할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임

○ EU 정부 R&D 예산 배정, 최근 10년간 GDP 성장률 소폭 상회(8.12)

- 다만, 물가 상승과 경제성장 효과를 제외한 GDP 대비 비중으로 보면 2015년 0.66%에서 2025년 0.69%로 소폭 상승하는 데 그침
- Eurostat에 따르면 EU 정부의 R&D 예산 배정액(GBARD)은 2015년 811억 유로에서 2025년 1,302억 유로로 증가함
- 절대 규모로는 10년간 약 61% 증가했지만 GDP 대비 비중은 2015년 0.66%에서 2025년 0.69%로 0.03%포인트 상승하는 데 그침

○ (기타) ▲EU 사이버 보안법 시행 과정서 혼선(8.17) ▲연구자 참여 파트너십으로 EU 기술 인력 부족 해소해야(8.17)